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새해를 알리는 신문에는 맨몸 마라톤이나 바다 수영 같은 힘찬 사진이 오르곤 한다. 나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만날 수는 없는, 청룡 주작 봉황 현무 같은 상상 속 동물들이 줄 알았는데 놀랄게도 가까운 친구가 새해 첫날 아침 제주도 바다에 뛰어들 사진을 보내왔다. 나는 입을 딱 벌리고 믿을 수 없는 친구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양력으로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 설날이 오지 않아 일년이다. 호랑이와 토끼 사이의 이바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맞이하기 적합한 때다. 나의 2022년은 거창하지 않으나 오목오목 잘 놀았던 좋은 한 해였다. 봄에는 친구들과 KTX를 타고 광주, 공주, 대전 등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녔다. 숲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나누는 이야기는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보다 훨씬 밀도가 촉촉하다. 밀린 근황을 나누며 숲길을 한 시간쯤 걷고 나서 도토리묵과 정국장 같은 옛날 음식을 먹었다. 누가 충청도 음식이 맛있다고 했는가! 가까운 곳에 아름답고 좋은 곳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동안 멀고 화려한

토끼처럼 다정하게

것들에 눈이 멀어 누리지 않았을 뿐임을 깨달았다. 여름에는 대학 동창들과 속초로 여행을 떠났다. 우린 입학 30주년이라고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가까운 속초에 펜션을 잡아 1박으로 놀고 오기로 했다. 여섯 친구들이 SUV의 맨 뒷자리에까지 채우고 떠나며 우리에게 MT라는 배타적인 추억의 영역이 존재함을 깨달았다. 90년대 히트곡들을 틀어놓고 우리가 젊었던 날, 휴대폰도 없던 선사시대에 기타를 메고 떠나 중일 노래를 부르고 허름한 숙소에서 코펠에 밥을 지었던 오래된 기억들을 소환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철부지이기도 했다. 연말에는 깜짝 선물처럼 중학교 동창들과 35년만에 재회하며 우리를 다시 이어준 SNS의 위력에 감사했다. 단발머리 소녀들이었던 우리는 직업도 사는 곳도 모두 달라진, 그러나 웃는 얼굴은 옛날과 똑같은 중년 여성들이 되어 다시 만났다. 우리에게 '동네'라는 추억의 영역이 보장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시절 중딩들의 핫플이었던 떡볶이집, 만화 가게, 약과 공장 등의 안부를 확인하며 시간을 잊은 하루를 보내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토끼는 다산의 동물이고 가족을 상정하지만 나는 오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친구는 가족과는 또 다른 사랑의 영역이다. 가족이 배타적이고 결속력이 강하다면 친구는 열려 있고 느슨한 관계다. 그 느슨함이 짝 조인 생활 속에 긴장을 풀게 하는 무엇이 된다. 결혼과 출산이 극도로 드물어진 요즘 가족의 범위는 확장되기 어렵고 한번 상실하면 다시 충원하기도 매우 어렵

다. 반면에 친구는 확대와 축소가 자연스럽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룻지내 만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절친이라도 뜬채지기도 한다. 오래 못 보면 친구라도 다시 만났을 때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고 의자를 권하면 끝이다. 그 모든 것이 유연하고 자연스럽다.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의 조건'에서 1938년 시작돼 무려 70년간 이루어진 행복에 관한 중단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는 하버드 법대 졸업생 집단, 아이큐 150 이상의 고지능 여성 집단, 보스턴 슬럼가 출신 청소년 집단의 인생을 수십 년간 추적해 인간이 노년에 느끼는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이나 직업, 재산, 가족은 뜻밖에도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행복과 가장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결정적 요인은 친밀한 인간관계, 즉 친구의 힘이였다. 젊은 날에는 일과 가족, 여행과 건강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지만 나이를 먹어 가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팔다리의 힘을 잃고 가족도 먼저 보내고 돈도 더 이상의 기쁨을 주지 않을 때 인간의 곁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근원적 능력이다. 친구를 만나 잡담과 근황을 나누는 일은 소소하지만 핵심적인 행복의 근원이며 통장보다 더 중요한 노후 대비이다. 호랑이의 기운을 잠시 내려놓고, 토끼들처럼 소소한 다정을 나누는 새해를 맞이해야겠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족을 느꼈고, 부족한 것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며,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보다 작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었다. 칠레의 빈민가에서 6년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리고 범죄자들의 소굴로 불리던 지역의 이웃들과 살 때, 느꼈던 감정과 삶이었다. 이 삶을 습관화하고 삶은 간절함이 있었다. 아끼려고 다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의 삶이 그랬었다. 많은 것이 없던 것이었고, 항상 있어도 부족한 것이었지만 작은 것에도 만족했었고 나눔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던 빈민가 사람들의 삶이었다. 가끔씩 기억을 되새기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경쾌한 말로 서로를 반겼던 칠레 빈민가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빈민가의 한 분당 사제관에 들어올 때는 내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바로 비워냄으로써 채워졌고, 낮춤으로써 높아졌으며, 조건 없이 사랑했고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내 안에 가득 찼던 것은 무

조금 부족하고 불편해도

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였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행복한 삶의 방법을 알고 있다. 소유와 독점으로는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채울 수도 없다. 나눔과 공유가 서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애써 부정하고, 남따리기로 떨어지는 것처럼 끝없는 나락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릴 뿐이다. 안달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절대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쓰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칠레에서만 쓰는 스페인어 격언이 떠오른다. "Mano de guagua"(마노 데 와와)라는 칠레에서만 쓰는 표현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갖난아가기 손가락을 절대 퍼지 않고 꼭 쥐고 있다는 의미이다. 의역하면 칠면피 같고 절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는 욕심 많은 스크루지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말이다. 또한 자신의 소유와 모아 놓은 재물이면 바라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다. 눈앞에 보이는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의 결과는 불행했고, 자신이 어리석었던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미 그 눈을 빼쳐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어떤 한 인간에게서, 또는 어떤 한 집단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 지인의 초대로, 광주 동구에 있는 꽤 유명한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수많은 반찬들과 함께 굉장히 맛깔스런 음식들이 차려졌었다. 네 명이상이 함께 식사를 해도 모자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식사 후 자리에 일어나려는데,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으며, 어떤 반찬은 그 위에 뿌려진 껌도 그대로인 채 손도 대지 않았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사제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내 모습이 너무나 어이없고 거짓된 모습이었다.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나왔지만 맛을 느끼기 보다는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유동기한이 훨씬 지난 라면 면 개와 마지막 남은 김치 한 조각을 정확하게 자로 재 둘로 나누어 먹었던 칠레 선교사의 삶이 떠올랐다. 두 건강한 사제가 한 개의 라면과 한 조각의 김치를 나눠먹는 것이 처량해 보였지만, 이때 먹었던 라면과 작은 김치 한 조각이 너무나 맛있었던 기억이다. 부족했지만 감사했고 불편했지만 너무나 행복했었다. 넘쳐나는 세상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여 부족한 것은 꼭 채워야 하고 불편한 것은 절대 참을 수 없으며 과도한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나'가 아닐까? 의문을 던져 본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충분히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 기다림을 통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서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이유는 왜일까? 행복으로 가는 길을 붙잡고 있는 탐욕이라는 덫을 풀어 내자.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면 어떤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기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양성관 동강대 교수

지난해 말 눈이 오는 퇴근길 운전 중에 앞을 잘 보지 못해서 도로의 중앙 경계석을 들이받은 적이 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공업사로 견인 조치를 한 후,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놓고 도로의 길가에 서 있었다. 진눈깨비는 내리고 영하의 온도에서 택시 잡기는 어려워 잠으로 난감한 상황이 놓였다. 누구에게 전화해서 집에 좀 데려다 주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금방 도착하여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곧이어 그의 아내까지 집에 와서 자동차 사고로 놀란 나를 위로해 주며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얼마나 놀랐느냐? 내일 꼭 병원에 가 봐라"며 사고로 놀란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무척이나 고맙았다. 지난해 세무에는 우리나라가 여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정쟁만 일삼는 자각 없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밑바닥을 보았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어 소상공인과 제조업 등 서

민 경제의 급락과 눈만 뜨면 오르는 시장 물가로 시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사회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애끓는 부르짖음에 등을 돌리는 정부의 태도에 온 국민이 분노했었다. 여기에 북한의 무인기가 여섯 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한 무능한 정부와 군을 보며 어이없이 한 해를 접었다. 무엇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은 상대방과 더불어 기쁨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감'이 없고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이 대한민국을 무관심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세'가 열렸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유족들은 서러운 눈물만 흘렸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은 정부에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추모제를 치르고 있는 반대편에서는 추모 행사를 반대하는 시위로 유족들이 실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족들의 향으로 30초 만에 발길을 돌리는 현실 역시, 유족과 정부 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100채, 1000채의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잘 살도록 방지

社說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광주·전남 지역에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광주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life balance) 지수가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중하위 수준인 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네 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간과 여성 취업, 가사 분담, 공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여성·남성 육아 휴직 이용, 지자체 관련 조례 및 담당 조직 유무 등의 지표들이 반영된다.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워라밸 지수는 전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였다. 특히 17개 시도 중 11

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반면에 광주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52.2점으로 8대 도시 가운데 부산(64.1점),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 대구(54.8점)에 이어 6위였다. 54.9점을 기록한 전남은 9대 광역 도 가운데 경남(58.1점), 경기(56.9점), 충남(56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근로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산과 서울이 1·2위를 차지한 것은 이들 지자체에 관련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는 등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아 환경 개선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저출산은 극복하고 지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서민 올리는 악질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전국 2위 '빌라왕'으로 추정되는 정 씨 사건은 부동산업체 직원들과 함께 벌인 조직적 범죄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50대 정 씨 사건의 공범 두 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그제 밝혔다. 정 씨는 2019년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중저가 신축 주택(빌라)을 섭외해 매매가 계약을 맺고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대보증금을 받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무자본 갭(gap)투자'로 480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부동산컨설팅업체 30대 직원인 공범들은 임대료를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정 씨의 빌라를 소개해 주고 허위 매매 계약서를 꾸며 수수료 등을 받아 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정 씨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빌라를 다른 바지 사장을 내세워 더 비싼 금액으로 허위 매매 계약을 맺고 새

임차인을 모집하기도 했다. 정 씨 일당의 범행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사례는 현재 208채 48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 400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0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광주·전남에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전세 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전세 사기의 최대 피해자는 종잡돈이 부족한 2030 청년세대와 서민들로 나타나 안타까움이 크다.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아 가로채는 행위는 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악질적 범죄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사기범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처럼 전세 비율을 70% 이하로 규제, 무자본 갭투자와 강동 전세를 막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無等鼓

높이 42cm의 흰칠한 키페 맑고 푸른 빛깔, 어깨는 무인처럼 당당하고 곡선은 매혹적이다.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국보 제 68호다. 몸체에는 42개의 원으로 된 창이 있는데, 창축에는 학이 구름을 뚫고 위를 향해 날고 창부의 학 23마리는 구름 사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학의 날개는 백상감으로 하고 부리와 다리는 흑상감으로 해상감 비문의 절정을 보여 준다. 매병 속의 학은 총 65마리. 그러나 중심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던 마치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을 뚫고 창공을 날고 있다. 형태와 면에서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가품(佳品) 진품(珍品)을 넘어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말 그대로 고려청자 최고의 명품(名品)이다. 천학 매병은 일제강점기 간송 전형필이 일본인 골동품상에게 2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에서 쓸 만한 기와집이 2000원 정도였다 하니 기와집 열 채 값이요, 농촌에선 수백 석까지 평값이었다. 간송은 일본인 재력가가 두 배의 값을 주겠다 했지만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

면 원금만 받고 남기겠다"며 거절했다. 간송이 지킨 이 청자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다. 지난 2019년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서 고려시대 청자 생산을 총괄한 행정 사무 기관인 치소(治所) 건물터 유적이 발굴됐고 천학 매병과 유사한 청자 조각이 출토됐다. 강진은 또한 청자 칠보투각 향로, 참외 모양 병, 어룡형 주자 등 수많은 국보나 명품 청자의 고향이기도 하다. 강진은 고려시대 최첨단 산업의 중심지였다. 전남도가 근대 생활자의 최대 생산지 목표, 고려청자의 주산지 강진, 우리나라 최초의 시유 도기 발생지인 영암, 조선 초 분청사기 대표적인 생산지인 무안을 엮어 도자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2025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자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엑스포를 계기로 전남이 대한민국의 넘어 세계인의 도자기 명품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유재관 편집담당 1국장 jkyou@

천학 매병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수진, 편집국장 김수진,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